

##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시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 방안 연구 돌입

윤소하(동문·경영 80) 국회의원 노력 결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목포와 전남서남권 주민의 숙원 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최근 윤소하(동문·경영학과 80학번) 국회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조달청을 통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 연구의 계약자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선정하고 조사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연구 기간은 7월 19일부터 내년 7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여건 분석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필요성 분석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의과대학 신설 효과 분석 ▲의과대학 설립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의과대학 신설을 위

한 필요성 분석 등을 조사·연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인력의 수급 상황과 전남 및 전남서남권의 지역특성과 의료여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에 근거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보건 의료 정책 방향에 맞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설립타당성 조사는 동문인 윤소하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이뤄진 결과물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질 저하 심각성을 질타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2018년 예산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예산 3억 원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이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현실화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전남 서남권의 지역 특성(인구구성, 다도해 등), 의료여건(의료인력, 의료서비스, 건강지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의과대학 설립타당성을 조사하고 동시에 지역적 특성과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조사 연구에는 지자체 지원 의지와 유관기관의 협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가 조사연구에 포함된 만큼, 지난 30년 지역 주민의 숙원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목포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 동문의 저력을 보여 줘시다

발간사

남과 북의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더욱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세계와 전국의 곳곳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개교 71주년 이된 모교는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점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우리 동문들은 세계와 전국 각지에서 부단한 활동을 통해 명실공히 사회의 중추적 리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올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16명을 배출해 내며 동문들의 자존감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모교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도 현실화돼 윤소하(경영 80) 국회의원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타당성용역’ 예산 3억을 확보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교에 의과대학이 생긴다는 것은 대학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 자치단체인 전라남도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커다란 과제입니다.

우리 총동문회는 목포대학교와 목포·무안·신안 단체장,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동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속



김종국

제26대 총동문회장

“모교의 의과대학 유치에 대학·동문·지역사회가 함께 힘 모을 때

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대학병원이 생기면 지역에 3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학과 동문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이때에 지난 8월 29일 제8대 총장재선거는 교수, 학생, 교직원만 참여하고 총동문회는 투표권을 단 1표도 갖지 못한 채 치러졌습니다. 지난 간선제 때도 주저했던 투

표권이 단 한 사람의 동문도 알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으로 참여해 수 차례 총동문회가 총장선출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체교수회의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총장선거는 전체 대학구성원들의 축제가 돼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9대 총장선거부터 총동문회에 투표권을 부여 한다는 것을 총추위 백서에 명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활동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동문들의 힘찬 에너지를 지역 사회에 표출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용역 진행상황

- 12.01 [교육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편성
- 03.28 [목포] 의과대학 설립 의미와 영향 토론회 개최
- 04.11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발표(전라북도)
- 04.17 [윤소하 의원] 복지부장관 미팅, 의과대학 설립 필요 공감
- 04.23 [교육부, 복지부, 윤소하 의원] 연구계획 제안서 마련 회의
- 05.02 연구계획 제안서 작성 완료
- 05.09 [교육부] 연구용역 진행 조달청에 요청
- 05.16 [조달청] 입찰공고
- 07.02 [심사] 교육부 주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07.19 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낙찰
- 07.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계약
- 07.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시작



## 인재의 나무[木]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지혜의 숲[林]이 됩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8]

일반계 국립대 중 취업률 2위 달성 [2017]

지역과 함께하는 국립목포대학교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BEST 5

저렴한 등록금  
연간 평균 390만원

풍부한 장학혜택  
연간 평균 304만원

전 노선 무료 통학버스 운영  
2019년 부터

편안한 학생생활관  
신입생 우선배정 50%

원스톱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 2019학년도 국립목포대학교 신입생 모집

정시 | 2018. 12. 29.(토) - 2019. 1. 3.(목)  
약학대학 | 2018. 11. 14.(수) - 2018. 11. 16.(금)  
입학상담 | 061. 450. 6000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어어문학과 일어일본학과 독일어문학과 사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인문학부 사회과학대학 | 도시및지역개발학과 지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부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언론홍보학과 공공인재학부 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기초과학부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원)생명과학트랙, 한약자유타랙, 식품영양트랙, 해양수산자원학과 간호학과 공과대학 | 기계·신소재공학과(기계공학신소재트랙, 신소재공학트랙) 조선해양공학과(조선해양설계트랙, 조선해양생산트랙) 스마트운송기계·신소재공학부 전기및전자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정보전자공학신소재트랙, 정보통신공학신소재트랙) 에너지ICT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컴퓨터·정보보호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식품공학과 환경공학과 조경학과 미래사회공학부 건축학과(5년제) 경영대학 |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금융보험학과 관광경영학과 전자상거래학과 경상학부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 아동학과 패션의류학과 생활과학부 음악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사범대학 |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환경교육과 약학대학 | 약학과



◇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동문 골프대회(왼쪽)와 등반대회(오른쪽)를 개최하고 모교의 의과대학 유치를 기원했다.

## 의대 유치 기원 동문 골프 · 등반대회

### “모교 발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동문 골프대회와 등반대회를 열고 모교의 의과대학 유치를 기원했다.

총동문회는 지난 6월 16일 군산CC에서 ‘2018 의과대학 유치 기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재경동문회 골프동호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김종국 총동문회장장과 이재정 재경동문회장을 비롯해 김경화 재경동문회 골프동호회장 등 8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김옥기(체육 80)동문이 메달리스트 우승, 홍성민(체

육 94)동문이 신페리오 우승을 차지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목포대 동문이 함께 펼치는 화합의 장이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5만 5천여 동문의 염원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앞서 5월 26일에는 목포 고하도 용머리와 목포신항 일원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기원하는 ‘2018 목포대학교 동문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등반대회에는 김종국 총동문회장, 홍성돈 재경동문회 사무총장, 박동철 학생취업처장, 홍

석 총학생회장 등 100여 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등반에 앞서 세월호가 안치된 목포신항을 방문해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종국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목포대 동문들이 함께 펼치는 지역사랑 실천 활동이자 모교발전을 기원하는 소중한 마음이 함께한 뜻 깊은 자리”라며 “최근 목포대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 타당성 용역이 진행됨으로써 의대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첫 발을 댄 만큼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전라남도의 숙원 사업인 의대 유치를 위해 많은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총장 재선거에 대한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입장

## 총장 선거, 동문에도 투표권을

2017년 12월 7일 선출되었던 총장임용후보자가 임용되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모교에서는 교수 299명(83.1% 반영), 학생 대표 73명(2% 반영), 직원 196명(14.9% 반영) 총 568명이 투표하여 총장선거가 다시 진행되었다.

결선투표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박민서(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출됐다. 목포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연구 윤리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박민서 후보와 전호문 후보를 1, 2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 목포대학은 종합대학교 승격과 국내 최초로 총장직선제를 쟁취한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강제로 폐지되었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 목포대학교도 2017년 12월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였지만 선출된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목포대학교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말았고 그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 목포대학교는 이번 총장 재선거에 관련하여 소수의 교수·교직원·학생들만 선출권한을 부여하고 대학의 한 구성원인 동문회는 아예 배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최초의 총장직선제를 쟁취해 낸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목포대학교답게 교수·교직원·학생·동문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선출이 이뤄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총장직선제가 교수들만의 압도적 수치가 반영된 직선제는 인맥과 학연에 따른 파벌과 줄서기,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 과열 혼탁,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총장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직선제 이후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며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실질적인 직선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동문들도 대폭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미 이화여대는 전임교원 988명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직원 270명, 학부생 및 대학원생 2만2,581명, 동문 1,020명을 총장선거에 참여시켰고, 반영 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문 2%이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부활은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교육계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총장 선거에 대학 발전의 원동력인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대학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감시와 견제의 눈이 많아지면서 선거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헌혈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총동문회 ‘헌혈의 날’ 행사 가져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목포헌혈의 집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경영 80), 김종국 총동문회장(원예 87), 홍석 총학생회장(음악 11)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랑 헌혈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동문, 재학생 등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지역의 위급한 환자를 위한 혈액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인 헌혈을 통한 혈액 기증으로 생명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헌혈행사에 참여한 채희준 동문(체육 87)은 “동문

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혈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 목포대 동문들이 펼치는 지역사랑 실천 활동의 첫 시작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모교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혈의 날 행사를 마친 목포대 총동문회는 오후 2시부터 목포캠퍼스에서 개최된 목포대-윤소하 의원 공동주최 목포대 의대 설립 토론회에 참석해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목포대의 역할과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다음 헌혈의 날 행사는 10월 18일 11시에 목포헌혈의 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헌혈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올 지방선거 동문 27명 당선

기초지자체장 2명, 도의원 9명, 시·군·구 의원 16명

## 총동문회, 동문 당선인 초청 연찬회 개최

국립목포대학교와 총동문회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18 지방선거 동문 당선인을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김종국 총동문회장, 김상재 총장 직무대리, 김산(지역개발학과 82) 무안군수 당선인, 박문옥(정치외교 94) 도의원, 백동규(식품

공학 91) 시의원 당선자 등 40여 명의 동문과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8 지방선거 광주·전남권 동문 출신 당선인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이 뜻을 모아 당선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모교 사랑과 지역발전에 함께 기여하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목포대학교는 이번 2018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권에서만 동문 출신 기초지자체장 2명(무안군수, 신안군수), 광역의원 9명, 시·군·구 기초의원 16명 등 총 2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목포대학교는 2016년 동문 출신 국회의원 1호(윤소하 의원, 정의당)를 배출한 이래, 이번 2018 지방선거에서 동문 출신 기초지자체장 2명을 배출해 겹경사를 맞았다.



◇ 국립목포대학교와 총동문회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18 지방선거 동문 당선인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올 초 목포시내 모처에서 총동문회 정기총회와 동문회장 이·취임을 가졌다.

## 목포대총동문회 김종국회장 취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총동문회 원년 될 것”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월 23일 오후 7시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 8층 연회장에서 총동문회 정기총회와 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목포대학교 총장, 재경동문회장, 윤소하 국회의원, 목포시장 및 목포대 출신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 속에 진행됐다.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김종국(취지앤지 대표)가 제26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종국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회 활동은 단순히 동문회 차원을 넘어 우리 지역 사회의 소외된 곳까지 살핍으로써 그 활동영역을 넓혀 지역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새로

운 총동문회 출발의 원년이 될 것이다”며 “아울러 최근 윤소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노력 끝에 교육부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3억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유치에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자랑스런 목포대인’ 시상식도 있었다. 올해의 동문으로는 동문 출신 국회의원 1호인 윤소하 의원이 선정됐다. 윤 의원은 정의당 소속으로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모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제27기 58명...1778명 배출

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원장 박흥식)은 지난 2월 1일 오후 5시 남악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제27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목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1991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1778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리더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박흥식 경영행정대학원장, 박동철 학생취업처장, 최한석 기획처장, 총동문회 임원 및 수료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총 58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교육과정 이수 실적이 우수한 원생에게는 총장상, 원장상, 총동문회장상도 함께 수여됐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이 모은 일천만원의 발전기금이 목포대에 기탁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송고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목포대는 이번에 기탁된 발전기금을 학부생 장학금 지급과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비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 제7회 지방선거 동문 당선인

① 이름 ② 선거명 ③ 학과

 <p>① 김산 ② 무안군수 ③ 지역개발학과</p>	 <p>① 박우량 ② 신안군수 ③ 목포교대 9회</p>	 <p>① 김희동 ② 전남도의원 ③ 사회복식학과</p>
 <p>① 나광국 ② 전남도의원 ③ 생약자원전공</p>	 <p>① 박문옥 ② 전남도의원 ③ 정치외교학과</p>	 <p>① 윤명희 ② 전남도의원 ③ 전기공학석사</p>
 <p>① 임용수 ② 전남도의원 ③ 행정학박사</p>	 <p>① 전경선 ② 전남도의원 ③ 최고경영자과정</p>	 <p>① 최선국 ② 전남도의원 ③ 경영행정대학원</p>
 <p>① 유영준 ② 광주시의원 ③ 행정학과</p>	 <p>① 정무창 ② 광주시의원 ③ 법학과</p>	 <p>① 김관호 ② 목포시의원 ③ 법학과</p>
 <p>① 김수미 ② 목포시의원 ③ 소비자동주거학과</p>	 <p>① 김양규 ② 목포시의원 ③ 화학과</p>	 <p>① 김훈 ② 목포시의원 ③ 법학과</p>
 <p>① 이혜자 ② 전남도의원 ③ 행정학박사</p>	 <p>① 최현주 ② 전남도의원 ③ 국어국문학과</p>	 <p>① 김귀선 ② 목포시의원 ③ 경영행정대학원</p>
 <p>① 백동규 ② 목포시의원 ③ 식품공학과</p>	 <p>① 최홍림 ② 목포시의원 ③ 일반대학원</p>	 <p>① 박소준 ② 나주시의원 ③ 교육대학원</p>
 <p>① 김종숙 ② 해남군의원 ③ 일반대학원</p>	 <p>① 민경매 ② 해남군의원 ③ 법학석사</p>	 <p>① 최은영 ② 영광군의원 ③ 경영대학원</p>
	 <p>① 김혁성 ② 신안군의원 ③ 경제학과</p>	

### 이마트 여행사

대표 조영인(일문/94)

목포시 옥암로 150 (옥암동) 이마트 1F  
대표전화 : 1588-3925  
휴대폰 : 010-5871-0515



동문 동정



◇ 체육학과 동문회가 매년 모교를 방문해 친목을 도모하고 후배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홈커밍데이를 갖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홈커밍데이 행사 모습.

## 스승과 만나고, 후배에게 장학금도 주고

### 체육학과 동문회 홈커밍데이 10월 17일 예정

체육학과 총동문회(회장 이재승·82)는 지난 3월, 6월, 9월 분기별 이사회에서 모교를 방문하는 ‘홈커밍데이’를 오는 10월 27일 하기로 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행사 전날인 10월 26일 체육학과

과 동문친선 골프대회도 실시, 15개팀이 참석할 예정이다.

체육학과 총동문회는 매년 100여 명의 동문들이 학교를 방문해 홈커밍데이를 열고 체육대회, 스승님과 만남, 친목행사, 재학생 장학금 전달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사학과 총동문회 결성

### 11월 10일 창립총회 개최 예정

사학과 총동문회는 지난 8월 3일 목포에서 창립 추진위원회를 열어 총동문회장 추대 및 회칙을 확정하고 총동문회를 결성했다.

사학과 총동문회는 서인석(81)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석부회장에 김대흥(81), 상임고문에 곽유석(81), 김경옥(82), 김희태(83), 감사에 임경주(81)동문을 선출했다.

사학과 동문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총동문회 결성을 위한 추진위 모임을 진행, 5월 임시 추진위원회 발족의 과정을 거쳐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오는 11월 셋째주 목포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인석 초대 회장은 “올해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각 기수 대표들을 정하고 기수 활성화를 꾀하며, 또한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사학과 총동문회는 오는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목포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사학과 총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재경목포대학교 동문회와 골프동호회는 시산제(왼쪽)와 친선골프대회를 열고 동문의 무사무탈과 친목을 도모했다.

## 시산제·친선골프대회 열어

### 재경동문회 ‘동문 무사무탈과 친목 도모’

재경목포대학교동문회(회장 이재정·경제 82) 산악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관악산에서 34명의 동문들이 참가해 시산제를 열고 동문들의 무사무탈을 기원했다.

시산제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될 무렵에 산악인들이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재경목포대학교동문회 골프동호회(회장 김경화)도 지난 4월 21일 포천 필로스GC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김종국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8개 팀 32명의 동문들이 참가했다.

### 장학기금·동문회비 납부안내

장학기금: 796201-01-520540 (국민은행)  
예금주 (재)목포대학교총동문회장학문화재단  
동문회비: 568301-04-026077 (국민은행)  
예금주 목포대학교총동문회

### 박태영정신계승사업회 ‘2018 체육대회’

## 부대끼며 ‘열사정신’ 계승

### 연례행사 자리잡아…홍상건립 추진위 구성

“이땅의 민족지성에겐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억눌림도 갈라짐도 분노도 저항도 시행착오도 피흘림도 여기서 끝냅니다. 민주 인본”

박태영정신계승사업회는 지난 6월 23일 모교 프라자 60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박태영열사를 기리는 열사탑 앞에서 약식 참배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임시총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안건으로는 사업회 회칙제정과 홍상건립추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추진위원장으로 서병수 전회장을 위촉했다.

보고 안건으로 박태영열사의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 등록 진행사항이 보고 되었다. 임시총회를 마치고 사무국장의 진행하에 광주와 목포로 팀을 나눠 학년별, 모임별 족구대회등 명랑운동을 진행했다.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체육대회는 매년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각 지역별 모임, 학년 모임, 동아리, 단대모임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박태영정신계승사업회의 2018체육대회가 지난 6월 23일 모교 프라자60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진행됐다.

### 윤소하 동문, 정의당 원내 대표 선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윤소하 동문이 정의당 원내대표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윤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자 7월 30일부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임기는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까지다. 윤소하 동문은 해남 출신 진보운동가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과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 박인배 동문, 영암 경찰서장 취임

박인배(행정82) 동문이 지난 8월 6일 제74대 영암경찰서장에 취임했다. 모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 후보(40기) 출신으로 서울 김포공항 경찰대장, 전남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박 서장은 취임사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 치안의 수호자로서 주민들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안전한 영암을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영암경찰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